발암물질 고혈압약 복용자 18만명

식약처, 고혈압약 발표 이틀만에 219개서 115개로 정정

전국 병·의원과 약국 문의 전화 쇄도…환자 불안 가중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혈압약 115개 품목에서 발암물질 함유가 우려되는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당 고혈압약을 복용한 환자가 18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 현재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의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한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는 17만8536명에 달한다.

국내에서 고혈압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환자수는 600만명 정도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2.9% 가량은 문제의 고혈압약을 복용한 셈이다.

앞서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은 고혈압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에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확인돼 제품회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지난 7일 해당원료를 사용한 국내제품 219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으나 불과 이틀 뒤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이 확인된 54개사 115개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제조 중지를 유지했다. 반면 나머지 104개 제품은 중국 화하이사 발사르탄을 수입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긴 했지만 실제로 사용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돼 판매·제조 중지가 해제됐다.

발사르탄은 스위스 제약사가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 성분 가운데 하나로 그 자체는 발암물질이 아니다. 중국 화하이사가 제조하는 과정에서 'NDMA'라는 물질이 불순물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됐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2A 등급인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2A 등급은 발암 가능성은 있지만 인체 발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NDMA는 간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동물 실험에서 콩팥이나 폐 등에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 허가된 고혈압 치료제 2690개 품목 가운데 발사르탄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571개이며 이 가운데 중국 화하이의 발사르탄 성분을 사용하겠다고 등록한 품목은 216개다.

최근 3년간 전체 발사르탄 제조·수입량은 48만4682kg으로, 이 가운데 중국 화하이사 발사르탄 비중은 2.8%(1만3770kg)에 해당한다.

환자들은 식약처가 일부 고혈압약에 발암 유발 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의약품에 대해 판매 중지를 내리면서 자신이 복용중인 약을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식약처가 일부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판매 중지 조치를 발표한 이후 전국 병·의원과 약국 등에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치료제에 문제가 있는지를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상 생활 중 공기, 물, 음식물을 접하는 경우에도 소량의 NDMA에 노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판매 중지 대상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라도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면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먼저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발암물질 함유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 치료제에 대해서는 잔여량 만큼 별도 본인 부담없이 다른 치료제로 재처방 해준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제의 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병원에서 다시 처방받을 때는 본인부담금 없이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며 "고혈압 치료제가 임의 복용중단 시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지속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환불 절차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멸치 말리기 좋은날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10일 오후 경남 남해군 삼동면 인근 방파제에서 한 어민이 죽방렴에서 잡아 올린 멸치를 말리고 있다.

'을지연습' 올해 안한다…안보정세따라 잠정 유예

'을지연습'이 잠정 유예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국방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올해 계획된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조성된 여러 안보정세와 한미 연합훈련 유예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이다.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매년 1회씩 각급 행정기관 상호연계하에 훈련이 진행된다. 1976년부터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이 통합됐다.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행정기관이 상호연계,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토·보완, 매년 충무계획이 수립된다. 모든 관계요원이 계획과 집행절차,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정부는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민·관·군이 함께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을지태극연습'은 내년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을지태극연습'을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뿐만 아니라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해 민·관·군 합동 훈련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달에 계획됐던 태극연습을 후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유예됐기 때문이다.

태극연습은 합동참모본부(합참) 주도하에 전구(戰區) 작전수행능력을 배양하고 합동전력과 부대구조 발전 소요를 도출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전구급 지휘소 연습(CPX) 이다. 매년 5~6월에 실시됐다. 올해 처음으로 연기됐다.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함에 따라 합참 주도의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지휘소연습을 위해 1995년 실무급 연습을 시작했다. 1996년에는 '압록강연습'으로 명명하고 합참과 작전사령부가 동시에 연습에 참가토록 했다.

이후 2004년에 '태극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올해 연습은 10월말 계획된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과 연계 실시된다.

태국 동굴고립 13명, '동굴병' 감염 우려

태국 동굴에 고립된 소년 12명과 코치가 전원 구조된 이후에도 일명 '동굴병(Cave disease)'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 의료진이 긴장하고 있다. 수일째 동굴에서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는 구조대원들도 감염이 우려된다.

'동굴병'이란 히스토플라스마 카프슐라툼이라고 불리는 균에 감염되는 질병을 말한다. 1940년대 오랫동안 폐기됐던 폭풍대비소에서 캠핑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온 후 특이한 폐질환을 나타내면서 일명 '동굴병'이란 용어가 생기게 됐다고 미국 ABC 방송은 9일(현지시간) 전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균류가 자라고 있으며, 히스토플라스마 균류도 자연 환경 속에서 발견된다. 특히 동굴은 히스토플라스마 등 균류가 자라는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ABC는 해마다 동굴 탐험 및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200만명 이상이어서 '동굴병' 감염도 갈수록 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굴병' 증세는 대부분 발열, 기침, 극도의 피곤, 한기, 두통, 몸살,가슴 통증 등으로 나타난다. 처음에는 감기 증세와 유사하다. 대체로 3~17일 잠복기를 거쳐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 건강한 사람들은 가볍게 증세를 앓다가 회복하지만, 면역체계가 취약한 사람 경우 균이 폐에서부터 신체의 다른 장기로까지 퍼져 심각한 병세를 보이기도 한다. 심하면 뇌까지 균이 퍼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동굴 탐험을 피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美 숲속에 묻힌 5개월 아기 9시간만에 구조

미 서부 몬태나주의 숲속에서 5개월된 아기 한 명이 나무가지와 돌부스러기 등에 덮인 채 파묻혀 있다가 9시간만에 무사히 구조되었으며, 추운 날씨에 더럽고 젖은 옷을 입었는데도 가벼운 상처만 입은 채 무사했다고 경찰이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남자 아기는 조사 결과 다른 별다른 상처는 없이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 아기는 미줄라 카운티의 롤로 국립수목원 안에 있는 롤로 온천지대에서 7일 저녁 8시께(현지시간) 사람들을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이 숲 속 어느 지점에 아기가 파묻혀 있다고 말함으로써 경찰이 수색, 구조했다.

경찰은 연방경찰, 주 정부와 지역 카운티 경찰관들과 공무원들을 총 동원해서 수목원 안의 온천지대 숲을 세밀하게 촘촘히 수색하던 중 6시간만인 8일 새벽 2시 30분에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구출했다고 발표했다.

발견 당시 아기는 나무가지와 돌 부스러기 무더기 속에서 얼굴을 아래로 한채 놓여 있었고 기온이 8도 밖에 안되는 쌀한 날씨인데도 입은 옷은 젖고 더럽혀진 홑 옷 베이비복 한 벌 뿐이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 대변인은 그러나 9일 성명에서 "아기는 여기 저기 멍들고 긁힌 가벼운 외상 외에는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日 기록적 폭우 원인은 '지구온난화'

일본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기록적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10일 현재 124명으로 늘었다. 6명이 심폐정지 상태, 실종자가 64명으로 집계됨에 따라 향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5일부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이번 비는 히로시마(廣島)·오카야마(岡山)·에히메(愛媛) 등 3개 현을 중심으로 사상자를 냈다.

재난대비 강국인 일본에서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일까.

10일 서일본지역 신문인 니시니혼(西日本)신문에 의하면, 기상청은 이번 폭우로 과거 최다 지역인 11개 광역자치단체에 '호우특별경보'(호우특보)를 내렸다.

기상청은 '50년에 1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상 기상현상을 기준으로 '호우특보'를 내리지만, 작년 규슈(九州) 호우에 이어 이번 폭우까지 후쿠오카(福岡)현에서는 년 연속 '호우특보'가 발표된 것이다.

이에 대해 니시니혼신문은 '이상'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그 원인을 분석했다. 후쿠오카(福岡)대학교의 모리타 오사무(守田治) 기상학과 객원교수는그 이유를 '지구 온난화'로 꼽았다. 그는 "기온상승으로 공기 중에 축적된 수증기의 양이 많아졌고, 이에 더해 (지구 온난화로) 대기상태가 불안정해지기 쉬워지는 등 폭우가 내리기 쉬워졌다"라고 설명했다.

온난화로 공기 중에 축적되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나 강우량이 급속히 늘어난다는 것이다.

일본기상협회 규슈 지사 측 역시 "기온상승으로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대기 중에 유입되는 수분의 양이 늘면서 폭우로 변하기 쉽다"라고 밝혔다.